

브라질의 차량용 타이어 시장 현황

(2014. 11. 14)

상파울루사무소

1 브라질 타이어 시장 규모

- (브라질 타이어 시장 규모) 브라질의 '10년부터 '13년까지 신차용과 교체용 타이어 시장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'14년 현재 판매량 기준 약 60백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.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'10	'11	'12	'13
신차용	17.60	17.62	17.58	19.41
교체용	31.60	32.28	32.72	36.90
소 계	49.20	49.90	50.30	56.31

자료: LMC 2014

2 시장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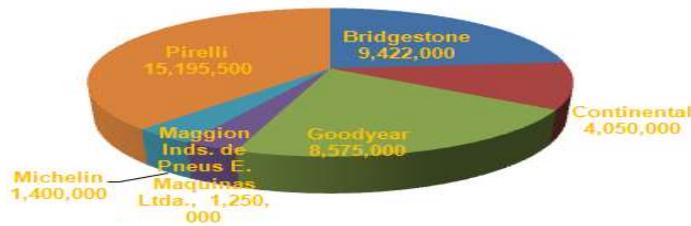
- (브라질 타이어 메이커 점유율) Tire Business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타이어 메이커는 Bridgestone, Pirelli, Goodyear, Continental 등임.
 - Bridgestone, Goodyear, Continental은 브라질 시장의 80%, 남미 전체의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.

3 시장 특성 및 시설투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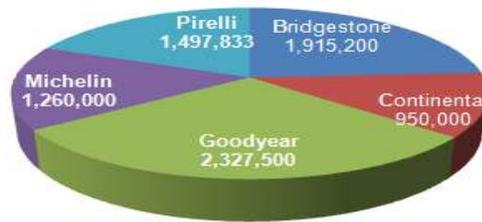
- (브라질 시장의 특수성) 브라질은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타이어 마모가 심해 연 1회 이상 교체해야함. 따라서 타이어 수요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
□ (외국기업 동향) '15년까지 컨티넨탈이 CAPA를 2배 증설할 예정이며, Pirelli의 경우 350만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설비 증설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브라질 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.

< 승용, 경용트럭용 타이어 제조 CAPA : 4백만 달러 >



< 대형트럭용 타이어 제조 CAPA : 8.2백만 달러 >



4 **시장 전망**

□ 타이어 시장의 선행지표인 자동차 생산량을 살펴보면 '12년~'13년 동안 증가추세이며,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수요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메이커별 자동차 생산량 확대로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.

